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2일 14시 41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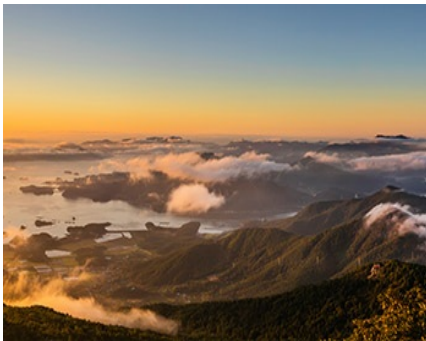
# 목차

목차  
전설

2  
3

지명유래
전설
민요
민속놀이

- 오동도   ▫ 향일암   ▫ 타루비유래   ▫ **금오산**   ▫ 벽수굴의 내력   ▫ 이랑장군과 장군도   ▫ 홀어미 정자나무
- 하구바위용굴



< 금오산 >

여수반도에서도 다시 들산대교로 이어진 전라남도 남단의 들산도에는 여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출 풍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향일암이 있다.

향일암이란 암자의 이름부터가 해를 향해 있다는 뜻으로 이 절경의 향일암을 안고 있는 산이 금오산으로 비록 높이는 낮아도 명산이라 일러 부족함이 없는 산이다.

향일암에는 금거북이의 전설이 얽혀 있는데, 풍수지리상 바닷속으로 막 잠수해 들어가는 금거북이의 형상이라 한다.

대웅전 앞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다보는 야트막하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머리, 향일암이 선 곳이 거북의 몸체에 해당하며 산 이름은 쇠 금(☒)자, 큰 바다거북 오(☒)자를 쓴 금오산이다.

한때 거북 구 자를 써서 영구암(☒☒☒)이라 부른 적이 있고 현재 영구암이란 편액이 남아 있기도 하다. 이러한 전설을 더욱 그럴 듯 하게 꾸며주는 것이 이 일대 바위의 무늬다. 바위마다 한결같이 거북의 등무늬를 닮은 문양이 나 있는 것이.

향일암에서 백미를 이루는 경관은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관음전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.

향일암 뒤에는 어른이 흔들거나 아이들이 흔들어도 똑같이 흔들리는 바위가 있는데 설악산 흔들바위 보다 조금 작은 이 바위는 흡사 경전을 펼친 모양이라 이를 한번 흔들면 불경을 한번 읽는 것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.

흔들바위 입구에서 5분쯤 비탈길을 오르면 곧 시야가 확 트이는 바위지대에 이른다.

촛대바위, 기둥바위 등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질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경관은 산행길에는 좀체 보기 드문 선경이다.

이렇게 뛰어난 향일암 일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2월 29일에 문화재 자료 제 40호로 지정 하였다. 그래서 여수 사람들은 이 산의 높이와 별개로 명산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.

# Yeosu Web Contents

